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일본은행, 유럽발 재정위기에 선제적 대응

- 일본은행은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6개 은행과의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기로 최종 결정함.
 -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유럽중앙은행(ECU)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무장관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로화 가치 급락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일본은행도 최근 임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 1월 기한의 통화스왑 협정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함.

- 일본은행의 통화스왑 참가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 뒤늦은 참여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됨.
 - 유럽중앙은행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점인 2007년 12월에도 주요국들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으나 일본은행의 경우 당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협정에 불참했으며, 이후 리먼 쇼크로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2008년 9월에서야 참여해 뒤늦은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지난달 말 향후 2년의 경기전망을 상향 조정한 일본은행은 이번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도 당분간은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이 없으며, 정책금리도 0.1% 전후로 동결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부의 금융 완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이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악화이며, 특히 그리스 국채의 대량 상환과 같은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는 만큼 일본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통화스왑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임.

(일본은행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I, 5/11)